

농번기 농촌 빈집털이 '주의보'

고성경찰서, 5회 걸쳐 740만원 훔친 50대 검거 ... 치안협력단체와 간담회 개최

법씨파종과 밭갈기 등으로 바쁜 농번기를 맞아 농촌마을의 빈집을 골라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농촌지역의 빈집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A씨(50세, 강릉시)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수회에 걸쳐 강릉에서 고성까지 방문해 대상을 물색한 뒤, 농사일 때문에 집이 빈 곳을 골라 창문 등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5회에 걸쳐 모두 74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는 농가의 도난 신

고를 받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농촌마을 순찰을 강화하던 중 또 다른 범행을 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피해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내기 등으로 바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절도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금품은 별도로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열린마루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협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완 서장은 농번기 빈집털이 및 아간자율학습 후 여고생 하굣길 문제를 언급하며, 관내 공·폐가에 낮은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자율방범대(연합대장 김형모)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이영일) 회원들은 치안행정에 적극 협력해 깨끗한 고성, 범죄 없는 고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열린마루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협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농번기 빈집털이 주의를 당부했다.

암컷대게 불법포획 50대 검거

속초해경, 현내면 대진 거주 연안자망어선 선장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800여마리를 잡아들인 혐의로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거주 연안자망어선 선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59세)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경 대진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해 암컷대게 8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자신의 집 지하실에 보관하던 중 21일 오전 9시30분경 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속초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사실을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김씨가 잡아들인 암컷 대게를



지난달 21일 속초해경에 적발된 암컷대게.

21일 오후 1시경 속초동방 3마일 해상에서 모두 방류했다.

한편 대게 암컷을 불법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한 대게 암컷이나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광호 기자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지난 1일 거진복지회관서 ...7개 노동조합 참가

제65회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모범근로자를 발굴·포상하고, 그간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2011년 근로자의 날 행

사가 열렸다.

지난 1일 오전 11시 거진복지회관에서 열린 올해 근로자의 날 행사는 고성향운노조가 주관하고 고성선원노조, 통일전망대노조,

고성수협노조, 레저비스노조, 고성택시노조, 코레스코노조 등 관내 6개 노동조합이 주최했다.

1부에서는 도지사상 2명, 군수상 5명 등 총 7명에게 모범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2부는 오후 1시부터 거진공설운동장에서 노조원들의 단합을 위해 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체육행사에 참여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택시 직장인 금연클리닉 운영



지난달 27일 고성택시(주)사무실에서 직장인 금연클리닉이 열렸다.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고성택시(주)사무실에서 직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인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사업장 흡연자를 대상으로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조성,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금연클리닉은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건강증진교육 등의 내용으로 운영됐다. 교육 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CO등을 측정하고 금연보조기를 지급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경찰서 전의경 요양원 봉사활동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 전의경 봉사대는 지난달 29일 거진읍 석문리 소망요양원을 방문해 요양원 주변 환경정리 및 어르신 목욕 도우미를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고성경찰서 전의경 봉사대에서는 매월 요양원 및 독거노인을 찾아 위문품 전달 및 환경정리를 실시해 주는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광호 기자